



소록도 한센인 생활용품 문화재 된다

냄비·치료도구·강제노역 기와를 등 14점

고흥 소록도 '소록도 병사 성당'(제659호)과 '마리안느·마가렛 수녀 사택'(제660호)에 이어 한센인 생활 유품도 문화재가 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1일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을 문화재 등록 예고하고 '의병장 유인석 심의고'(제661호)는 등록했다. 국립소록도병원 소장 '한센인 생활 유품'은 한센인들이 치료와 생활을 위해 스

스로 제작한 개인 치료용 칼과 국자, 냄비 등이다. 또 강제노역 현장에서 사용된 시멘트 블록 형틀, 기와를 등 총 8종 14점이다. 한센인 환자들의 열악한 치료시설, 부족한 물자, 강제노역 등 당시 고립되고 처절했던 생활상이 담겨 있다. 또한, 생존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지혜와 창의가 모인 도구들이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병장 유인석 심의고'는 조선 후기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유인석(1842~1915)이 평소 착용했던 심의(深衣·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입던 겉옷)이다. 유인석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시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1896년 의병대장으로 취임해 연해주에서 독립

운동을 펼치는 등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문화재로 등록된 옷은 심의(深衣) 1점, 머리에 쓰는 복건(幅巾) 1점, 허리띠 역할을 하는 대대(大帶) 1점으로 구성된다. 조선 시대 말(1870년대 이후) 통용된 심의로서 복식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인석의 역사적 중요성 등이 인정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셈 문화장관 회의와 맞물려 열린 아시아문화포럼이 2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다.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찰스 랜드리 싱크탱크 COMEDIA 대표 등의 기조연설을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조·보상금 허위 청구엔 5배 제재금 등록금보다 더 지원받은 학자금 반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과태료 2천만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1년 무급 휴직

법을 제정·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5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대학 등록금 액수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초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조금이나 보상금 관련 부정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하는 것과 별도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과거 3년 동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교육시설·백화점·시장·공동주택 등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보험을 의무화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

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열정페이' 등 기간 지체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 액수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초과 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연합뉴스

“문화, 도시와 어울려 자생하게 해야”

아시아문화포럼 개막 국·내외 석학들 제안

“도시의 자산인 문화와 독창성을 중심으로 두고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아시아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아시아문화포럼이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임향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성근 서울대 명예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대표 지성으로 꼽히는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문화진흥과 문화의 정치성'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문화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결하는 추세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화가 보다 더 큰 경제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

지나친 경제영역 편입 경계

인프라 구축 등 도시개발보다

독창적인 지역 문화 접목해

창의적인 도시환경 조성

는 것은 이해할만하고 또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가 경제영역에 편입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문화는 그 자율성에 생명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주의 흐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일반화하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문화, 기술 그리고 창조성에 대한 도시의 역할’ 기조발제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중요역할을 하는 것은 도시이며,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유네스코 사무총장 재직시절 ‘창조도시 국제적 네트워크 만들기’를 유네스코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이 국제적인 틀에 한국의 광주와 일본 사포로처럼 많은 아시아 국가와 도시가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조들이 남긴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을 토대로 새 기술을 적절히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찰스 랜드리 싱크탱크 COMEDIA 대표는 ‘21세기 유목 세계의 문화와 창의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창조도시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로 통하는 그는 인프라 구축 등 도시개발 방식을 경계했다.

그는 “여전히 수많은 도시들은 하드웨

어 중심, 그리고 기술주도적 도시엔지니어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도시개발계획은 주민부를 중심으로 ‘창의력과 문화’를 배양하는 데 우선 순위를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창조적 도시가 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결합하고 감각과 경험에 중점을 두되, 교류·거래, 네트워크에 적합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시가 갖고 있는 지역문화를 심분활용하고 도시의 독창성에 중심을 두며,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창조적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문화포럼은 22일까지 ‘문화산업의 미래’와 ‘도시 속의 창의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지며 특별세션으로 광주비엔날레 주관 ‘제8기 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토론회가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리퍼트 주한 美대사 광주 방문...오늘 전남대 특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1~22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리퍼트 대사는 첫 날인 21일 미국 대사관이 운영하는 국제교향프로그램에 참가한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만찬을 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22일에는 전남대에서 지방문 총장을 면담한 뒤 학생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한

다. 이후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차명석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을 만난 뒤 부산으로 이동한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표적인 지한파다. /김형호기자 khh@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 (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울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검은 초록색 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 일반 상업지역/6차선 도로 접/현, 주차장
- ▶ 시세 / 감정이 - 23억원
-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 매매 - 협의
-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 주인직매 H.010-8829-6876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서구 양동 월산사거리 지하층~5층 숙박시설(원룸가능) 대지 175평 건물 425평 ▶ 감정이 11억 최저가 4억9천만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콘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래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이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이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감정기에56%)
- [급매] 하남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투자수익 프랜차이즈 추천 ▶ 거래가 18억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태양호 ▶ 감정이 1억2천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5평 토지 47평 ▶ 감정이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담양읍 삼관리 전원주택마을입구 도로접 인야. 위치좋은 토지2730평 전원주택지 개발추천 ▶ 최저가 4억6천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12평 마을입구 도로접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거래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공사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서양새마을금고 양림지점 및 복지관 신축공사 (전기 및 통신)
나.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73 (양림동)의 1필지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
라. 공사규모: 지상5층, 연면적 560.92㎡,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공사내용: 전기공사(전력 간선설비, 전동설비, 전열설비, 냉난방설비) 및 통신공사(구내통신 선로설비, TV설비, 방송설비)
바. 수요(주관)기관: 서양새마을금고
사. 추정가격: ₩175,2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격)
전기: ₩137,258,000원, 통신: ₩37,961,000원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문서 등은 서양새마을금고 인터넷 게시판 (<http://cafe.daum.net/seoyang>)의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 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접속 시 주소창에 직접 <http://cafe.daum.net/seoyang>을 입력하여 우리금고 게시판에 접속하시고,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양새마을금고☎ 062-671-5000 담당 최재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0일

서양새마을금고